

탱커 2주 연속 신조선가 상승, 컨테이너선도 지난주 상승

코멘터리

대표 차트

새해 수주는

- ① 현대미포조선이 그리스 Chios에서 MR탱커 1척을 수주하며 2018년을 시작했는데, Tier-II로 작년에 이미 만들어진 계약건이어서 신조선가 상승 확인은 아직입니다.
- ② 현대중공업도 Trafigra로부터 LPG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컨테이너선 등에서 수주설들이 강합니다.

- ③ 비록 Evergreen의 11,000teu 20척 중 12척은 일본 이마바리가 가져갔지만, 잔여 8척에서 아직 한국의 수주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④ 작년에 22,000teu 9척을 중국에 발주한 CMA-CGM은 14,000teu 8척도 추가로 발주하는데, 한국의 수주를 기대합니다.
- ⑤ Total의 LNGBV 프로젝트에 3개 용선사+조선사 조합이 추려졌고, 현대미포조선 컨소시엄도 끝까지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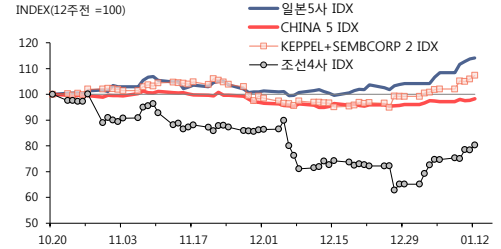
2018년에 가장 중요한 투자포인트 신조선가는

- ⑥ 지난주 신조선가지수, 중고선가지수 모두 보합이었고, LNG선은 \$181m으로 또 \$1m 하락했지만, 지난주 탱커 전선종 신조선가가 또 올라 2018년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컨테이너선도 3,000teu~10,000teu 전선형 신조선가가 상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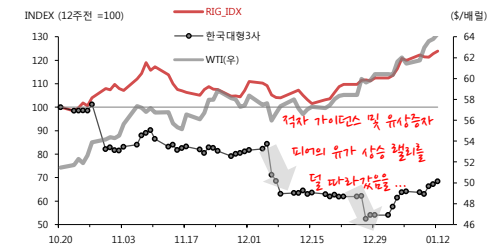
지금 한국 조선사들은 2018년에 이어 2019년까지 적자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장차 조선주 주가는 현재 비어있고 이제 곧 영업을 통해 채울 2020년 수주의 양과 질에 달려있습니다. 신조선가는 가벼워진 잔고, 2018년의 인도(Delivery, 공급) 이상의 발주(Contract, 수요), 원화 강세 및 강재가격 상승에 따라 상승압력이 높습니다. Tier-II를 완판해 백로그를 2년으로 채운 한국 조선도 선가 인상을 완고히 시도 중에 있습니다. 곧 브로커리지 기관의 호가가 아닌 실제 신조선가 인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조선가 인상, 즉 2020년 흑자전환이 확인될 때, 현재 타겟 PBR 0.9배의, 1.0배 이상으로 올리고 목표주가도 올려 부를 수 있습니다.

연초의 선종별 신조선가 상승 분위기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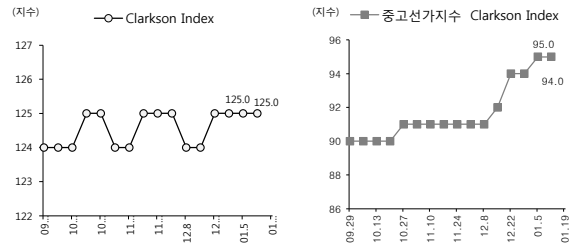
▶ 한/중/일/싱 주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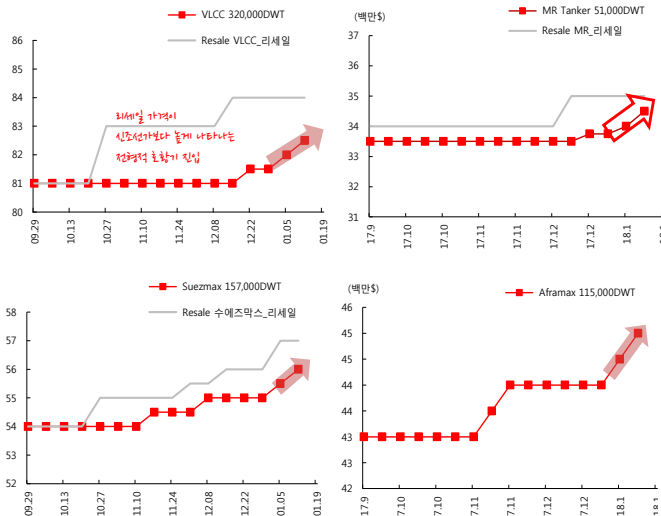
▶ 유가와 RIG 플레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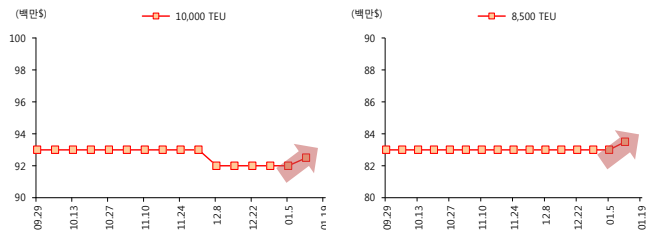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1p 상승, 중고선가지수 1p 상승



▶ 탱커 신조선가 전선종 연초부터 2주연속 상승 + 리세일 > 신조선가의 호조 상황



▶ 컨테이너선 신조선가도 상승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탱커 2주 연속 신조선가 상승 & 지난주 컨테이너선도 상승

탱커 전선종 2주 연속 상승했고, 컨테이너선도 3,500TEU~10,000TEU 상승에 성공
대우조선 "작년 4분기 적자, 올해는 이익"

수주

- △ Chios Navigation → Hyundai Mipo, PTK(50k) 1척
- ▲ Trafigra → 현대중공업, VLGC 2척



수주설

- ▷ Evergreen → 일본 이마바리 조선에 12척 발주 → 그러나 나머지 8척 가능성도
- △ CMA-CGM, 추가로 14,000teu 최대 8척의 \$850m 프로젝트 준비
- △ Total의 LNGBV, 경쟁자 추려: 미포 shortlist 3사에 남음

기계들

- △ 17년 12월 중국 굴삭기 내수판매: 시장 YoY +97% vs. 두산인프라코어 +152%
- △ 대동공업, 현대건설기계에 지게차 OEM 생산 공급
- △ 한-UAE, 사우디 원전시장 공동진출...칼둔 "韓 원전 대만족"
- ▽ 시련의 두산重...임직원 복리후생비 절감 추진

ASP & 실적관련(국내외)

△ 신조선가지수 포함이었지만, 탱크 신조선가 2018년 2주 연속 상승으로 시작 & 지난주 컨테이너선 신조선가도 대다수 선형 상승!

중고선가지수는 95p 제자리를 지켰고, 신조선가지수도 지난주 상승에도 불구하고 125p 제자리였지만 선종별 신조선가가 탱커가 지지난주 2018년 첫째주에 이어 둘째주에도 상승하며 2주 연속 상승 출발했고 컨테이너선도 3,500TEU ~ 10,000TEU 모두 상승에 성공해 장차 신조선가 상승 기대감을 반영 중

▷ 삼성중공업 "매드독FPU 건조 나선다"

<http://nr.ii/S18gl>

정진택 삼성중공업 전무는 11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2018년 조선해양인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드독FPU(Mad Dog FPU)와 '코랄 FLNG(Coral FLNG)' 해양플랜트 설계가 끝나 올해 건조에 나선다고 밝힘
매드독FPU는 올해 중순부터, 코랄FLNG는 올해 연말 본격 건조

▷ 이성근 대우조선 부사장 "작년 4분기 적자, 올해는 이익"

<http://nr.ii/hXb1O>

수주잔량이 다른 곳(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보다 많아 올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큰 변화없이 전개될 것지만 다만 지난 4분기에 대해서는 "환율이 100원 떨어지면 손익이 연간 2000억~3000억원 손해나는 구조"라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반영하다보니 적자가 났다"고 말함
수주 목표에 대해서는 "작년에 35억달러를 수주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
시황에 대해서는 LNG선 발주신호가 지난해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컨테이너선은 잠잠하다며,
해양플랜트에 대해서는 해양 건조물량은 2년 이상 채워져있는데 건조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해양수주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 ...
... 리스크(위험)가 적은 해양플랜트 위주로 보고 있다고 설명

△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서 건조한 2만600TEU급 컨테이너선 선사에 곧 인도

<http://nr.ii/37FVN>

지난 2015년 4월 프랑스 최대 해운사인 CMA-CGM의 2만660TEU급 컨테이너 운반선 3척을 수주
관계자는 11일 "CMA CGM에서 수주한 3척이 모두 마무리 작업 단계"라며 "이 중 먼저 1척은 성능검사 및 기술 검사 등을 거쳐 곧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힘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해양_생산

▽ 노르웨이 StatOil의 Castberg FPSO는, 로컬 2개사 중 한 곳으로

- 노르웨이 Aibel, Kvaerner가 Castberg ph2 탐사이드에서 최종 경합 중이며, 2월 중순 정도 결정이 날 예정
- 10억\$ 이상의 계약금액이 예상되며, Kvaerner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Aibel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



▶ LNG & LNG 추진

▲ Gaslog의 삼성중공업 LNG선 발주는, 기존 발주 1척의 인도 시점 조정을 동반

- Gaslog는, 지난해말 삼성중공업에 3Q19 단납기 LNG선 1척을 계약했는데, 이는
- Centrica의 기존 발주 1척(2013년 계약)의 인도를 1Q20의 뒤로 미루면서 계약된 것임
- 이 Centrica LNG선은 BOR 0.07%의 GTT 추천 Mark V가 채택되었다가, 기술 이슈로 Mark III Flex로 변경된 바 있음 (01월2주) ▲ Gaslog → 삼성중공업, LNG선 투기발주!
- Gaslog는 삼성중공업에, XDF 엔진을 채택한 180k LNG선을, 2019년3분기의 비교적 단납기로 발주: 신조선가는 \$195m으로 전함
- 용선 계약이 아닌 투기발주이며 단납기인데, 2019년~2020년의 LNG선 공급이 딸리는, 긍정적 시황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 현재 Gaslog는 삼성중공업에서 3척, 현대중공업에서 2척의 LNG선을 건조 중
- >> 투기 발주까지 붙었습니다.

▲ TMS Cardiff의 LNG선 2척 추가 발주 배후에는 Cheniere가 있다는 설

- 지난해 주 TMS Cardiff는 Total 용선발주 1척을 현대중공업에 발주하면서, 2척의 LNG선을 추가로 계약했는데
- LNG 용선 시장에 따르면, 이중 최소 1척이 미국 Cheniere와 7년 용선이 체결되었다는 풍문
- 사실 2017년 11월, Cheniere가 Cardiff, Gaslog, Dynagas의 3개 선사를 숏리스트로 추려, 7년 용선계약 입찰을 진행한 바 있음
- Cheniere는 Sabine Pass LNG 4번 train, 가동에 따른 LNG선이 필요한 상황

(01월2주) ▲ Total의 LNG선 2척, TMS Cardiff와 SCFI이 따내고, 모두 현대중공업이 수주

- 7년 용선계약에 용선료는 \$63,500/day: 최근 스팟 운임은 \$75천/일~\$90천/일이며, 스템터빈 선박의 경우 45천/일 수준
- 현대중공업에 수주한 선박 중 1척은 신조선가가 \$180m 이하로 다소 낮았던 것으로 전해짐

(01월2주) ▲ TMS Cardiff → 현대중공업, LNG선 2척 추가 발주!!

- TMS Cardiff는 Total과의 용선 계약 바탕 1척 외에, 현대중공업에 LNG선 2척을 추가로 계약해 그 배경이 주목됨
- >> 또한 현대중공업의 LNG선 4척 계약 러쉬가 2017년말인지, 2018년초인지가 불확실합니다.
- >> 일부 기사에서 2017년 28척의 LNG선이 발주되었다고 정리되었는데, 클락슨 및 한국 조선사 수주 척수 19척과 맞지 않습니다.
- >> 이번 Gaslog와 TMS Cardiff를 포함해도 24척입니다.

▷ LNG 프로젝트 밀려서, LNG선 인도도 2018년으로 다수 미루어짐

- 작년의 20척 이상의 LNG선 인도가 연기된 것으로 집계
- 미국의 Cameron LNG, Freeport LNG 수출 프로젝트가 2018년 가동 예정으로 시작되었지만, 2020년으로 지연됨에 따름
- 애초 2018년 55척 LNG 인도 예정이었지만, 최소 15척이 늘어, 올해 70척 LNG선 인도가 예정
- 2019년은 367척, 2020년 9척, 그 이후 5척

△ Yamal, Arc7들 인도 앞당기려는 의지

- DSME는 5호선까지 인도한 상황에서, 5.5MTPA의 2번째 LNG train 가동시점을 3Q18로 공격적으로 앞당기면서,
- 기존 3월, 8월, 그리고 2019년 1월, 2월, 4월에 인도될 6호선~10호선의 인도를 앞당기고자 함
- Train 3은 2019년 가동 예정
- 5척의 인도 채빙선 중 3개 호선은 실제 LNG cargo를 적재해 운반한 바 있음

▶ 기타

▽ 루마니아 정부도, DSME의 망갈리아 조선소 지분 인수 희망

- 이미 작년 11월 DSME는 망갈리아조선소의 지분 51%를 독일 Damen에 매각했는데
-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루마니아 정부도 최근 군함 등 건조의 이유로 51% 지분 인수를 희망한다는 업데이트
- DSME는 Damen에 51% 지분을 \$259m(290억원)에 매각: 1997년에 대우그룹과 2 Mai Mangalia가 설립한 JV 야드는, 최근 5년간 \$800m의 적자를 시현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①Chios Navigation→Hyundai Mipo, PTK(50k) 1척

▲ 그리스 Chios → 현대미포조선, MR 1척
 - 그리스 Chios는 6년만에 현대미포조선에 50k PC선 발주
 - 인도는 2019년 상반기로 단납기이며, Tier-II로서 신조선가는 \$33m으로 추정됨
 >> 아직은 작년 중에 한창 마케팅 및 완판된 Tier-II여서 신조선가 상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수주할 Tier-III 선박들은 Tier-II 대비 \$1.5m~\$2m 높아야합니다.
 >> 즉, MR탱커 \$35m 이상을 볼 때, 마진 상승을 동반한 선가 상승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②Sovcomflot JSC→Hyundai HI (Ulsan), LNG(174k) 1척

(01월2주) ▲ Total의 LNG선 2척, TMS Cardiff와 SCFI가 따내고, 모두 현대중공업이 수주
 - 7년 용선계약에 용선료는 \$63,500/day; 최근 스팟 운임은 \$75천/일~\$90천/일이며, 스팀터빈 선박의 경우 45천/일 수준
 - 현대중공업에 수주한 선박 중 1척은 신조선가가 \$180m 아하로 다소 낮았던 것으로 전해짐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Evergreen → 일본 이마바리 조선에 12척 발주

- 대만 Evergreen은 18억\$ 규모, 20척의 11,000teu 발주를 추진 중이었는데,
 - 그 중 12척을 일본 Imbari에 발주: 자회사 Greencompass Marine과 Evergreen Marine이 각각 6척씩 용선발주 예정
 - Evergreen은 3년 전에도 Shoei를 통해 Imbari에서 18,000teu 11척을 건조한 바 있음
 - 전체 20척은 확정 10척 + 옵션 10척인데, Imbari가 12척을 가져갔고,
 - 나머지 8척(2+6척 추정)의 발주상세내역은 알려지지 않음: Imbari, CSBC,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프로젝트 전체를 경합 중이었음
 - Evergreen은 기존 8,500teu 용선 만기에 맞춰 11,000teu를 운영할 예정
 - 2020년 인도, Scrubber를 채택한 Tier-III, 신조선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척당 \$90m을 넘을 것으로 보임

△ CMA-CGM, 추가로 14,000teu 최대 8척의 \$850m 프로젝트 준비

- CMA-CGM은 14,000teu 6척~8척 신조투자를 준비: 2020년 인도, 브로커 신조선가는 \$106m~\$108m
 - 앞서 중국 후동중화와 외고교조선에 발주한 5척+4척의 경우 선가가 15%~20% 높은 LNG-Fuelling을 채택해, 후속 14,000teu에도 채택 여부가 관심인데,
 - 2만teu 급보다는 LNG-Fuel의 효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함

△ Total의 LNGBV, 경쟁자 추려: 미포 shortlist 3사에 남음

- fast-track으로 18,600cbm LNG bunker vessel을 진행 중인, Total은 지난해말 8개의 경쟁사들을 3개로 추림
 - 1) 독일 Anthony Veder + 중국 Avic Dingheng Shipbuilding
 - 2) 벨기에 Exmar + 중국 Jiangnan SY
 - 3) Bernhard Schulte + 현대미포조선이 경쟁 중
 - 용선처 + 조선사 조합을 이달 경쟁해, 1월말이나 2월초에 본 계약을 체결할 일정
 - 아직 LNG탱커 타입으로 Type-C, Membrane-type, off-the-shel Type-C 탱커 등이 정해지지는 않음
 - 이 LNGBV는 CMA-CGM의 9척 컨테이너선 운영의 LNG feed를 담당할 예정이며, 연간 0.3MTPA로 2020년부터 10년간 서비스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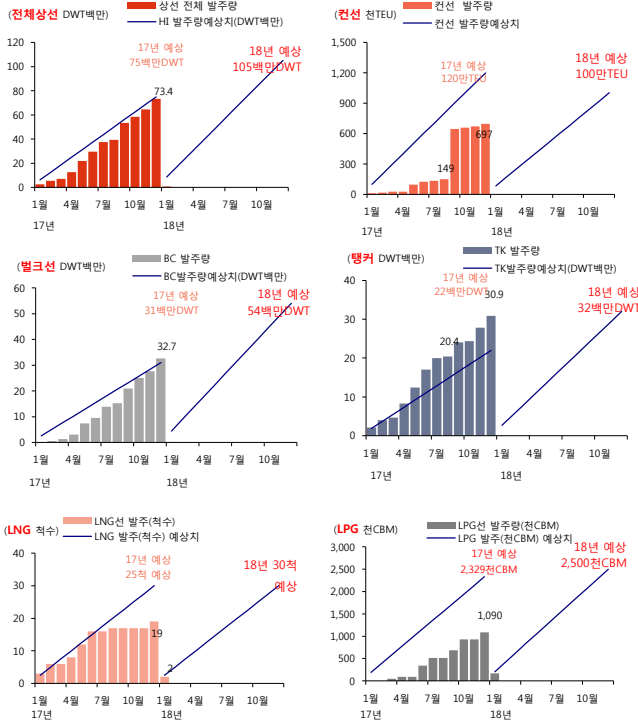
▲ Trafigura → 현대중공업, VLGC 2척

- 트레이딩하우스 Trafigura는 현대중공업에 80k CBM의 VLGC 2척 발주
 - 인도는 2019년말 인도이며, 신조선가는 \$70m 안팎으로 전함
 - StealthGas가 실제 선박을 소유하는 형태로 Sale-and-Leaseback 구조라는 풍문이 있었지만, StealthGas는 이를 부인: StealthGas는 VLGC를 보유하지 않은 중소형 가스선 전문 선사
 >> 지난주에도, 연간전망 자료를 통해서도, 올해 가스선 시장의 잔고가 너무 가볍고, 올해 발주 증가가 예상된다고 얘기드리고 있습니다.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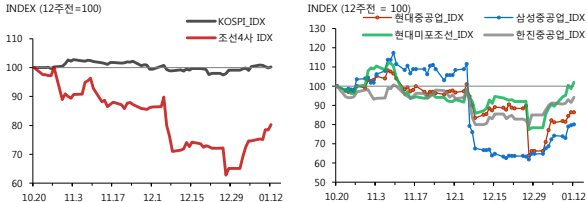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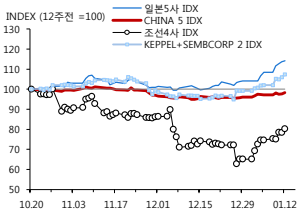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17년12월4주								
BIG6	Hyundai Vinashin	17.7.21	Unknown	Unknown	PTK	46k DWT	2019	6
	Hyundai HI (Ulsan)	17.12.11	유럽	Kyklades Maritime	TK	319k DWT	2019	2
	Hyundai Samho HI	17.12.22	아프리카	Central Shpg Monaco	TK	158k DWT	2019	2
	STX SB (Jinhae)	17.9.7	유럽	Pantheon Tankers	PTK	50k DWT	2019	4
		17.7.20	Unknown	Unknown	PTK	50k DWT	2019	2
한국	MASTEK HI	17.12.27	아프리카	Govt. of Tanzania	FERRY		2019~2020	2
중국	Bohai Shipbld.	17.9.1	중국	RGL Shipping	BULK	208k DWT	2020	1
			Unknown	Berge Bulk	BULK	208k DWT	2020	2
중국	COSCO Zhoushan	17.11.1	유럽	Aegean Shipping Mngt	BULK	82k DWT	2020	2
	Jiangsu New YZJ	17.11.1	유럽	Angelakos Hellas SA	BULK	82k DWT	2020	2
		17.9.1	유럽	Angelakos Hellas SA	BULK	82k DWT	2020	2
		14.12.31	Unknown	Unknown	BULK	37k DWT	2018	1
	Jinglu Shipyard	17.9.1	유럽	Laskaridis Shipping	BULK	82k DWT	2020	2
	Nantong COSCO KHI	17.11.29	유럽	Yasa Shpg. Industry	BULK	61k DWT	2019~2020	4
	Jiangsu New Hantong	17.11.1	유럽	Oldendorff Carriers	BULK	81k DWT	2019	2
	New Times SB	17.10.20	Unknown	Unknown	TK	158k DWT	2019	2
	Xiamen Shipbuilding	17.6.1	중국	Quanzhou Ansheng	CONT	2k TEU	2019	4
	Guangdong K-Link SB	15.12.26	중국	Guangxi Fengshun	BULK	2k TEU	2017	1
	COSCO HI Yangzhou	15.7.29	중국	COSCO Shipping Dev	CONT	14k TEU	2018	3
일본	Higaki Zosen	17.12.22	아시아	Glory Navigation Co	BULK	10k DWT	2019~2020	3
	Shin Kurushima	17.8.1	Unknown	Unknown	BULK	8k DWT	2019	1
	Honda Zosen K.K	17.8.1	Unknown	Unknown	BULK	2k DWT	2018	1
	Kanda Zosensho	17.8.1	Unknown	Unknown	BULK	17k DWT	2019	2
18년01월1주								
BIG6	Samsung HI	18.1.2	유럽	GasLoq	LNG	180k cu.m.	2019	1
	Hyundai HI (Ulsan)	18.1.4	유럽	Cardiff Marine	LNG	174k cu.m.	2020	1
중국	Jiangnan SY Group	18.1.3	중국	China Gas Fortune	LPG	84k cu.m.	2020	2
중국	Beihai Shipyard	17.12.28	중국	ICBC Leasing	BULK	325k DWT	2019~2020	6
	Jiangsu New YZJ	17.12.24	중국	CDB Leasing	BULK	208k DWT	2020~2021	5
	Dalian COSCO KHI	18.1.1	중국	COSCO Shpa Energy	TK	308k DWT	2020~2021	2
	GSI Nansha	17.12.28	중국	Shanghai North Sea	TK	69k DWT	2020	3
18년01월2주								
BIG6	Hyundai Mipo	18.1.12	유럽	Chios Navigation	PTK	50k DWT	2019	1
	Hyundai HI (Ulsan)	18.1.4	러시아/CIS	Sovcomflot JSC	LNG	174k cu.m.	2020	1
국영	Huangpu Wenchong	18.1.5	중국	Seacon Ships Mngt	BULK	82k DWT	2019	2
		18.1.3	북미	Unknown U.S. Owner	CONT	1k TEU	2020	2
		17.12.18	유럽	Cape Shipping	CONT	3k TEU	2019	2
		17.11.1	중국	China Navigation	CONT	2k TEU	2019~2020	4
민영	AVIC Dingheng SB	17.11.1	유럽	Anders Utiklens	PTK	10k DWT	2020	2
	Unknown China	17.12.23	아시아	Prima Marine	PTK	3k DWT	2019	4
	SH Harbour Fuxing	17.12.27	중국	Jiangyin Shunan	OFF-기타	5k HP	2019	1
	GSI Nansha	17.12.1	Unknown	Aurora Tankers	PTK	55k DWT	2020~2021	4
	Zhuhai Jianglong	18.1.7	중국	Unknown Chinese	FERRY		2019	2
일본	Shin Kurushima	16.12.1	일본	Uyeno Transtech	PTK	6k DWT	2017	1

Peer Group 등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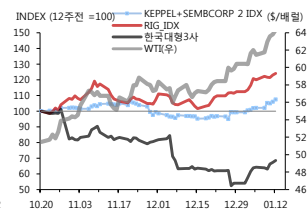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 조선업 한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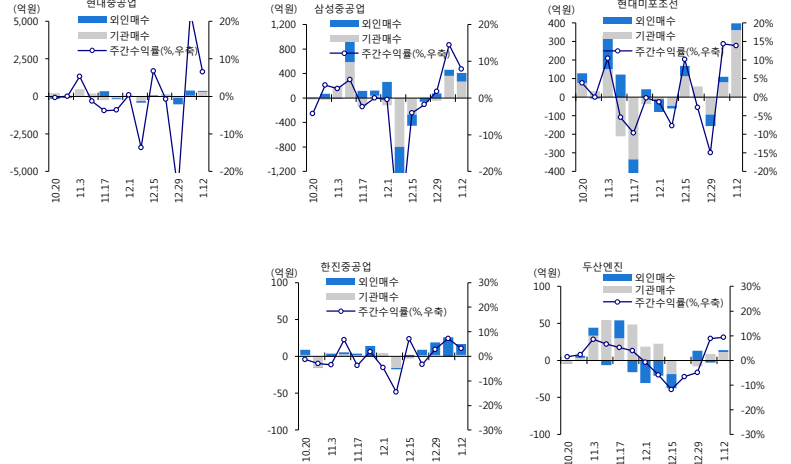


▶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조선 수급

▶ 조선6사 수급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 올해 최대 5000여명 집싼다...조선업 칼바람 여전

<http://nr.li/glxFx>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조선 5사에서만 올해 최대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함: 이는 이들 5개사 종업원 4만8200여명의 10%가 넘는 수치

1) 삼성중공업은 올해에만 최대 2300여명의 직원을 줄여야 함

2016년 자구계획 일환으로 올해까지 전체 인원(약 1만4000명) 중 약 30~40%(5000여명)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지난해까지 약 2700명을 내보냈기 때문
3월부터 과장 미만 사원급을 대상으로 임금반납도 확대해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생산직을 포함한 사원·대리급에 대한 임금 10% 반납 동의를 받고 있음
: 차·과장급은 임금의 15%, 부장은 25%, 임원은 30%를 반납 중

관계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반납이 이뤄질 것"이라며 "10개월만이라도 어려움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임금 반납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
연말엔 조직개편을 통해 임원 수를 30% 축소, 기존 72명에서 50명으로 22명 줄였다고, 89개 팀도 67개로 조정

2) 대우조선해양도 최소 200여명, 최대 1000여명의 인력감축이 불가피

채권단은 올 상반기까지 종업원수를 1만명 미만으로 줄이라고 요구: 2015년 1만3500명의 인력을 최근 2년간 3300명 축소

2016년부터 CEO는 전액, 임원 및 부장급은 30~40%, 직원은 10~15% 반납을 지속: 사무직은 1개월 순환 무급휴직 중

3)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경영개선계획을 달성한 만큼 현재 회사 자원의 희망퇴직 계획은 없다고 밝힘: 순환휴직 등을 통해 비용절감 나설 계획

▶ 현대중공업 보도

▷ 현대중공업, 70척 이상 선박 수주되면 군산조선소 재가동

<http://nr.li/TCMt6>

지난 11일 부산에서 개최된 조선해양업계 신년인사회에서 현대중공업 강환구 사장은

올해 70척 이상의 선박을 수주하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할 수 있다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선박 수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에 울산 승령

<http://nr.li/GXigY>

9일 전체 조합원 1만2066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

... 투표자 1만768명(투표율 89.24%)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62명(52.58%)이 반대에 부결

노조는 부결 이후 즉시 입장을 내고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결정을 경히 받아들여 회사에 재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

...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합원들과 약속한대로 정면돌파로 하루 빨리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사는 조만간 재교섭에 나설 전망

앞서 지난해말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지급 등에 잠정 합의

▶ 삼성중공업 보도

▽ 뼈깎는 구조조정 '삼성중, 전단계로 자금차환 '분주'

<http://nr.li/TRJFN>

삼성중공업이 만기가 3개월에 불과한 전자단기사채(이하 전단계)로 차입금 대응

9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천억원이 넘는 전단계를 발행하기 위해 주요 증권사와 협의

조달한 자금은 오는 12일(1천200억원)과 15일(800억원) 만기가 돌아오는 2천억원의 전단계를 차환하는 데 활용할 계획

목표한 수준보다 많은 자금이 모이면 발행 규모를 늘린다는 게 삼성중공업의 구상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차래에 걸쳐서 3개월짜리 전단계를 발행해 총 7천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바 있음

▽ 삼성중 2,500명 추가감원

<http://nr.li/g3rnW>

삼성중공업은 2,500여명의 인력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업황 회복 때까지 버틴다는 계획

▶ 대우조선해양 보도

△ 이성근 대우조선 부사장 "소난골 드릴십, 올해 인도 목표"

<http://nr.li/mCIY>

양골라 정권이 바뀌면서 올 초 소난골 경영진이 완전히 다 바뀌었다며 바뀐 경영진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상태로, 올해 인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함

지난 2013년 양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으로부터 드릴십 2기를 12억4000만달러에 수주, 2016년 건조를 마치고 6~7월에 인도할 예정

소난골측의 자금 사정으로 인도가 계속 연기돼 대우조선은 인도시 받기로 한 잔금 1조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함

▷ '대우조선 인수 무산' 한화, 날릴뻔한 보증금 1천여억 받는다

<http://nr.li/x47YI>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며 3천억원대 이행보증금을 걸었다가 인수가 무산된 후 돌려받지 못했던 한화케미칼이 그 절반가량의 돈을 되찾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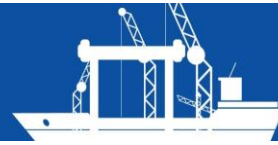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

... 산업은행 등이 1천260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

1, 2심은 대우조선이 상장기업인 만큼 정보가 공개돼 있어 확인 실사는 불필요했다고 보고 한화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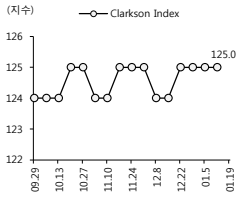
대법원은 2016년 7월 "한화가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 실사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

...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원심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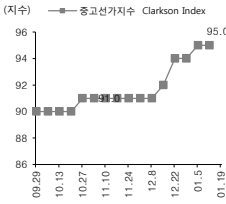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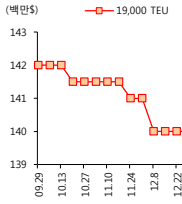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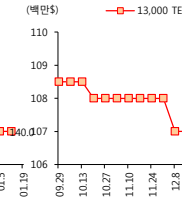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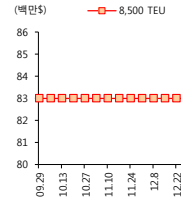
▶메가 울트라막스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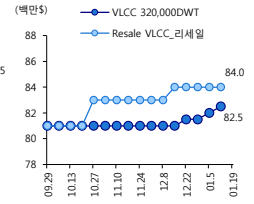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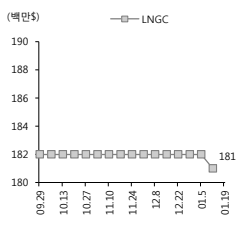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 8,500t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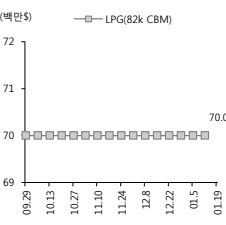
▶탱커 VLCC의 신조 vs 리세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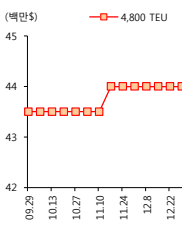
▶LN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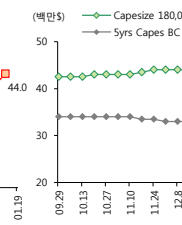
▶LP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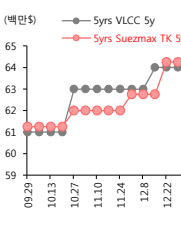
▶컨테이너선 - 신조선가 4,80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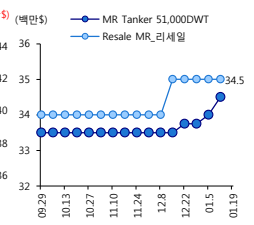
▶Capesize 벌크선 - 신조, 중고선가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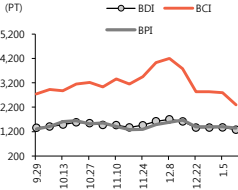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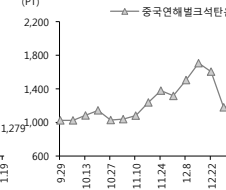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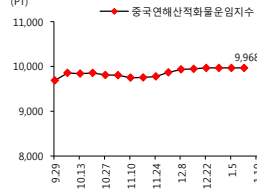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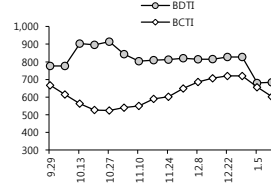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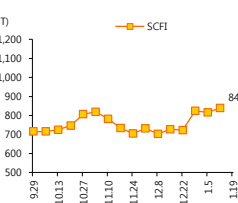
▶중국연해선적화물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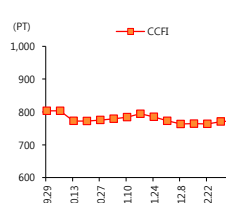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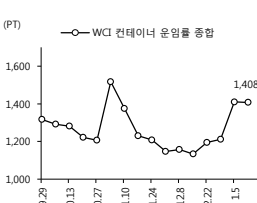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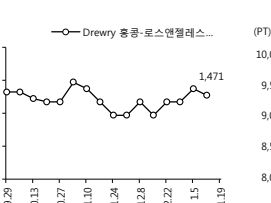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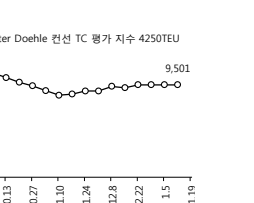
▶WCI 컨테이너 운임률 종합



▶Drewry 동중-로스연필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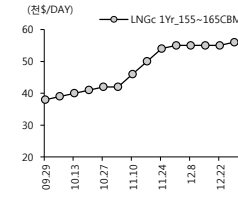


▶Peter Doehle 컨선 TC 평가 지수 4250T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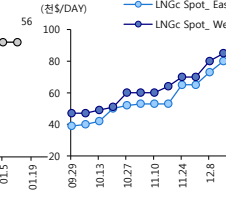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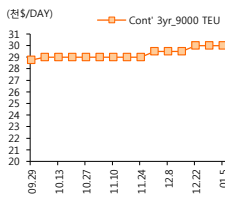
▶LNG선 1y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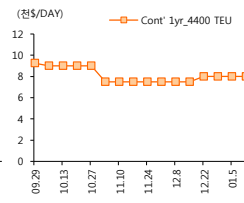
▶LNG선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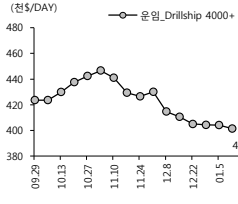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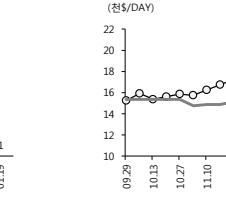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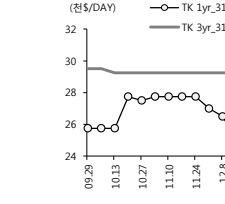
▶드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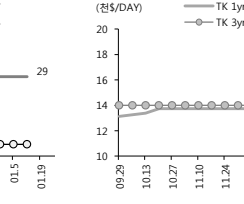
▶벌크선 - 케이프



▶탱커 - VL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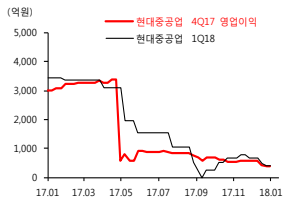


▶탱커 - 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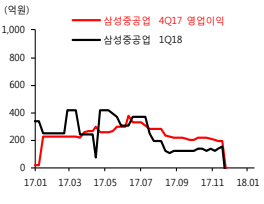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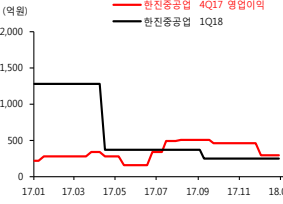
▶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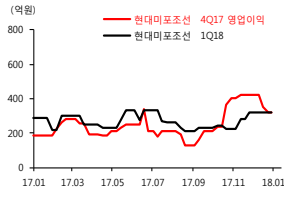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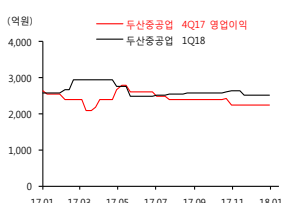
▶ 한진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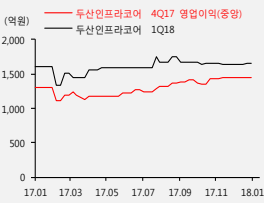
▶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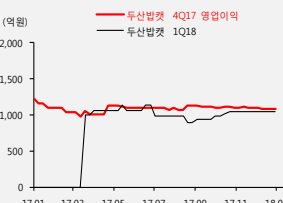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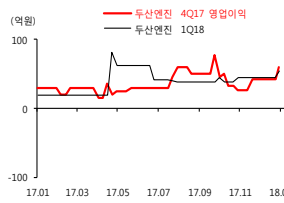
▶ 두산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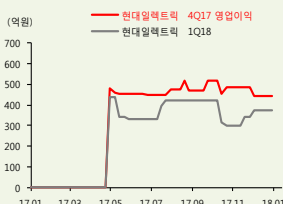
▶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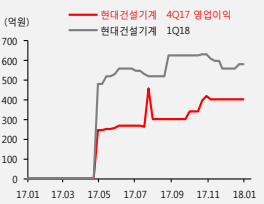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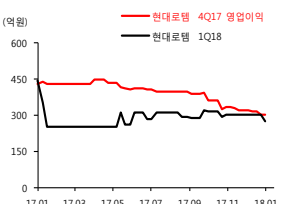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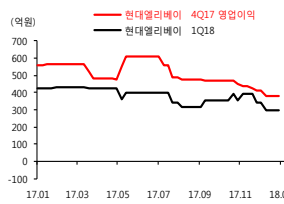
▶ 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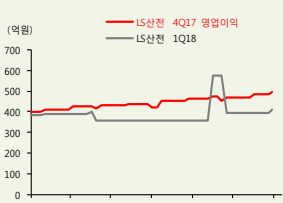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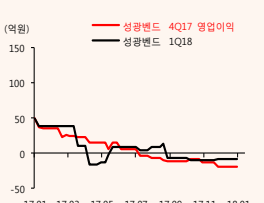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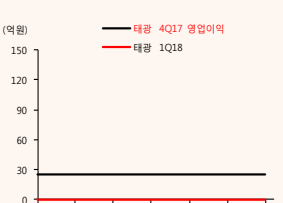
▶ LS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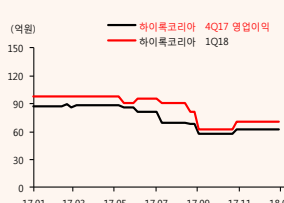
▶ 성광벤드



▶ 태광



▶ 하이룩코리아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7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12.16	17.12.23	17.12.30	18.01.06	18.01.12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7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6,478	15,393	27,273	42,951	43,801	43,801	41,976	45,484	45,532	6%	4%	2.9	131,000		
	삼성중공업	277	275	273	302	-693	-761	-761	-762	-762	적진	적지	-11.9	9,050		
	현대미포조선	7,369	9,533	9,747	19,172	19,038	19,038	18,620	18,702	18,148	-5%	-5%	5.6	102,500		
	한진중공업	-123	-411	-474	-883	-1,037	-1,037	-1,037	-1,037	-1,263	적지	적지	-2.9	3,665		
두산	두산중공업	1,425	689	601	-447	-563	-563	-563	-563	-563	적지	적지	-30.5	17,200		
	두산인프라코어	832	889	902	991	990	990	990	985	985	-1%	0%	11.1	10,900		
	두산엔진	198	177	170	142	151	140	140	140	149	4%	-2%	29.5	4,385		
	계	30,732	30,744	30,387	30,509	14,606	14,635	14,635	11,086	11,173			18.0	201,000		
기계	현대건설기계	28,256	26,997	26,323	25,232	12,338	12,477	12,477	9,440	9,440			12.8	120,500		
	LS산전	3,862	3,900	3,900	4,106	4,128	4,135	4,135	4,135	4,105	0%	-1%	17.4	71,300		
	현대엘리베이터	5,351	4,420	4,290	4,029	5,030	5,407	5,407	5,407	5,407	34%	8%	10.1	54,600		
	현대로템	523	484	433	411	421	421	421	416	433	5%	3%	39.6	17,150		
방산	한국항공우주	2,200	1,625	1,489	1,055	-669	-669	-669	-722	-749	적진	적지	-63.1	47,250		
	한화테크윈	1,964	1,858	1,764	1,192	1,097	1,043	1,047	1,048	1,048	-12%	-4%	32.2	33,800		
	LIG넥스원	4,557	4,651	4,664	2,975	2,140	2,140	2,140	1,890	1,890	-36%	-12%	28.4	53,600		
퍼팅	성광벤드	-82	-92	-189	-233	-290	-290	-290	-290	-290	적지	적지	-40.1	11,650		
	태광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0%	0%	73.9	13,950		
	하이룩코리아	1,837	1,869	1,873	1,947	1,996	1,996	1,996	1,996	1,996	3%	0%	12.7	25,300		

그룹	종목	2017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12.16	17.12.23	17.12.30	18.01.06	18.01.12	2017	2018	2017PBR		
조선	현대중공업	208,977	211,417	218,203	226,656	225,971	225,971	222,677	220,940	220,877	21%	0%	0.6		
	삼성중공업	18,733	18,717	18,721	18,820	17,887	17,805	17,805	17,805	17,805	-4%	-2%	0.5		
	현대미포조선	118,081	120,952	119,523	127,658	127,640	127,640	126,299	126,099	123,553	15%	3%	0.8		
	한진중공업	8,810	8,616	8,594	8,025	7,983	8,522	8,522	7,481	7,481	-17%	-4%	0.5		
두산	두산중공업	30,765	30,062	30,126	29,377	29,412	29,412	29,412	29,412	29,412	-2%	5%	0.6		
	두산인프라코어	10,622	11,047	10,642	10,694	10,502	10,501	10,501	10,501	10,501	9%	10%	1.0		
	두산엔진	7,945	7,921	7,869	7,773	7,821	7,809	7,809	7,809	7,871	2%	1%	0.6		
	계	231,741	231,895	267,992	303,559	113,662	113,662	113,662	113,662	113,662	10%	13%	1.8		
방산	현대건설기계	232,690	225,780	242,828	276,425	104,726	100,467	100,467	100,467	100,467	9%	10%	1.2		
	LS산전	39,086	39,113	39,113	39,589	39,621	39,637	39,637	39,637	39,599	10%	12%	0.0		
	현대엘리베이터	37,757	35,026	35,026	34,503	38,605	38,605	38,605	38,605	38,605	14%	14%	1.4		
	현대로템	16,964	16,882	16,799	16,748	16,769	16,769	16,769	16,761	16,784	3%	5%	1.0		
퍼팅	한국항공우주	15,869	15,370	15,299	15,214	13,367	13,367	13,367	13,305	13,272	-6%	12%	3.6		
	한화테크윈	45,246	45,013	44,926	44,180	44,061	44,061	43,926	43,926	44,027	2%	4%	0.8		
	LIG넥스원	32,127	32,210	32,229	30,239	29,812	29,812	29,812	29,500	29,500	6%	12%	1.8		
하이룩코리아	성광벤드	16,540	16,564	16,479	16,362	16,311	16,311	16,311	16,311	16,311	-2%	1%	0.7		
	태광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	2%	0.8		
	하이룩코리아	23,776	23,800	23,800	23,947	23,947	23,947	23,947	23,947	23,947	8%	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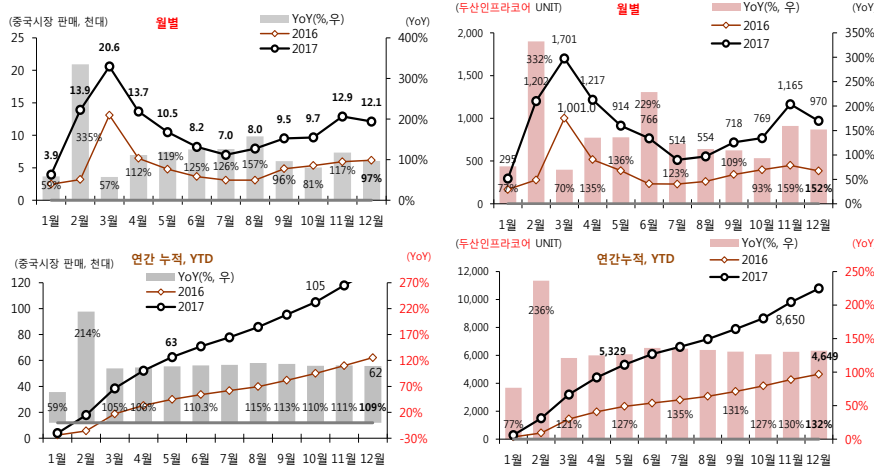
출처: Dataguide



금주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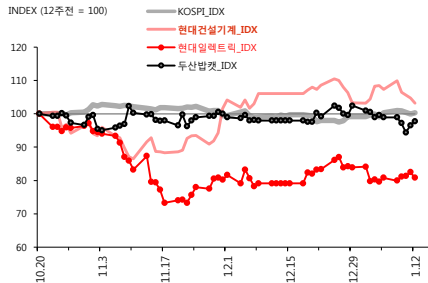
▶ 17년 12월 중국 굴삭기 내수판매: 시장 YoY +97% vs. 두산인프라코어 +152%

2017년 연간으로 시장 YoY +109%, 두산인프라코어 +132%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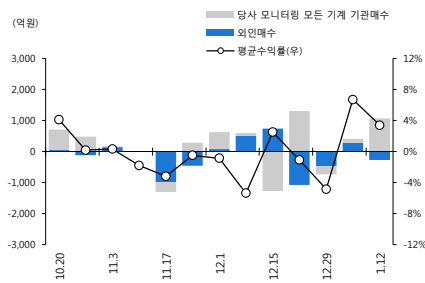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할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률



기계 업종 뉴스

탈원전 & ESS

△ 한-UAE, 사우디 원전시장 공동진출...갈둔 "韓 원전 대만족"

<http://lnr.ii/Ai9d3>

방한 중인 갈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늘(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원자력발전소 분야 협력 등을 논 양국은 이미 UAE 원전 수주 당시 제3국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UAE는 사우디에서 태양광 사업을 한 경험이 있으며 태양광 모듈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와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백 장관은 설명 갈둔 청장이 바라카 원전의 우리 건설진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예산과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힘 갈둔 청장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국과 원전 계약을 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주위 많은 나라에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

건설기계

△ 대동공업, 현대건설기계에 지게차 OEM 생산 공급

<http://lnr.ii/nBwip>

대동공업(주)이 5년간 현대건설기계(주)에 지게차를 OEM 생산, 공급한다고 11일 밝힘 대동공업은 이번 계약을 통해 연 2만대까지 조립 가능한 지게차 생산 라인을 본사인 대구공장에 구축하고 2017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5년간 현대건설기계로부터 지게차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완제품으로 조립해 공급 생산 기종은 디젤식, LPG식 소형지게차(1~3.3t)와 중형지게차(3.5~8t) 그리고 전동지게차(1~5t) 사업 첫해는 약 1만4000대를 생산 공급해 165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5년간 1000억원 정도의 매출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



큰 기계들

▽ 시련의 두산重...임직원 복리후생비 절감 추진

<http://nr.ii/qajhs>

두산중공업은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휴가비 전액 삭감을 추진: 삭감은 2018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
학자금과 의료비 지원은 내년으로 유예: 초중고 대학생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학비를 전액 지원했으나, ...
... 올해는 시중 은행 대출을 앞선해주고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신
의료비의 경우 임직원 본인이 우선 결제하면 해당 금액을 내년에 지급할 계획

▽ 두산중 자회사 두산밥콕, 영국서 구조조정...직원 120명 실직할듯

<http://nr.ii/8GdKL>

11일 BBC 등 외신과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두산밥콕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영국 내 직원들에 대한 조직개편 과정
렌프루 공장 직원 60여 명을 포함해 영국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두산밥콕 직원 120여 명이 실직할 위기
두산밥콕은 현재 50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렌프루 공장에는 약 530여 명이 근무
두산밥콕은 2016년부터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다. 영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일부 부문에서 장기적인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2016년 12월에는 약 47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발표

▽ 한기평, 두산중공업 신용등급 'BBB+'로 하향 조정

<http://nr.ii/YkPWQ>

한국기업평가는 두산중공업(034020)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 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부여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탈원전·탈화력 정책에 따라 사업·수익기반이 약화됐고 재무부담이 확대된 점을 감안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와 영국 무어시스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
... 7차 전력수급계획에 예정됐던 수주규모 7조원이 넘는 총 6기(8.8GW 내외) 국내원전의 발주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수익성 저하가 나타날 전망
향후 모니터링 요인은 신재생·해외프로젝트 확대 여부, 두산엔진 지분 매각과 두산 보유 신주인수권부사채(BW) 출자전환 여부, 자구노력 성과 등

△ 두산엔진 "MSC 엔진 수주, 대우조선해양과 계속 협상 중"

<http://nr.ii/vPKTb>

지난해 12월13일 '두산엔진, MSC 수주전서 고배' 보도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5척에 들어갈 엔진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맡길 계획'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미 해명 공식 한 바 있다며
현재 당사는 MSC가 발주하는 컨테이너선용 엔진의 수주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계속 협상 중이라고 12일 답변

▷ 두산건설, 분당센터 건설자금 3750억 마련

<http://nr.ii/hwXfb>

최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디비씨에 오는 15일부로 3750억원의 채무보증을 결정: 디비씨는 두산분당센터 건설을 위해 작년 5월 말 설립된 두산건설 자회.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두산건설 등 계열사 4곳이 출자
두산그룹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건물을 매각한 뒤 재임차(세일앤드리스백)하거나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려 했지만 불발
성남시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함께 두산이 매각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여론 반발이 불거졌기 때문

▷ 모간스탠리 PE, 현대로템 485억 블록딜 성공

<http://nr.ii/iEzpj>

지난 11일 장 종료 후 현대로템 지분 255만 주에 대한 블록딜에 돌입: 증가 1만 8700원에 할인율 6.0~9.9%를 책정, 주관사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수요예측 결과 주문은 1000억 원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져, 판매 지분 규모를 285만 주로 늘렸고 할인율은 8.9%로 결정
주당 거래 가격은 1만 7035원이며 거래 규모는 485억 원으로 추산

작은 기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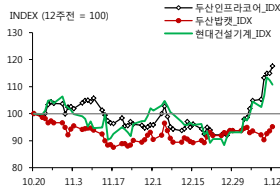
△ 씨에스윈드, 775억 규모 윈드타워 공급계약 체결

<http://nr.ii/C6Xq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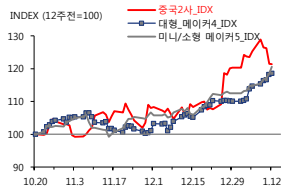
Siemens Gamesa Renewable Energy A/S와 775억원 규모의 윈드 타워(WIND TOWER)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계약기간은 내년 2월 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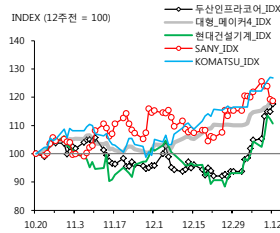
▶ 한국시장 상장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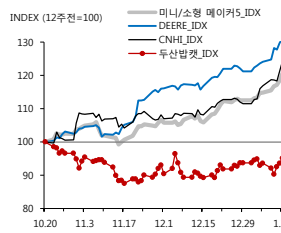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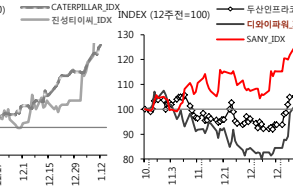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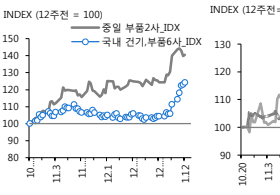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쯔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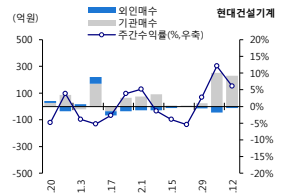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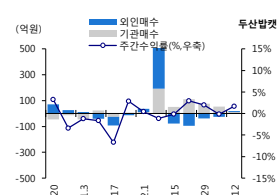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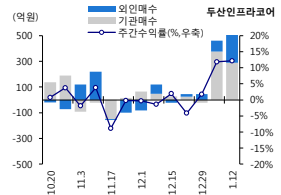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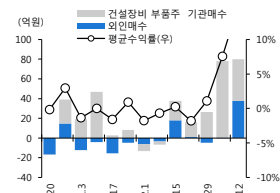


건설장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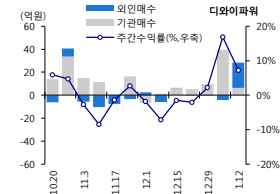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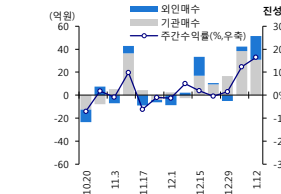
▶ 건설장비 메이커3사



▶ 건설장비 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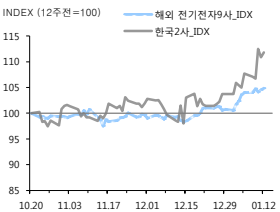


주식) 부품주4사: 진성티이씨, 디와이파워, 중국, 동일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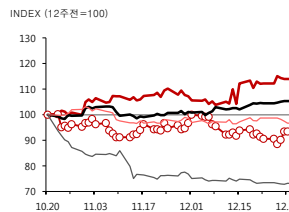


중전기

▶ 한국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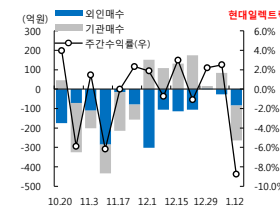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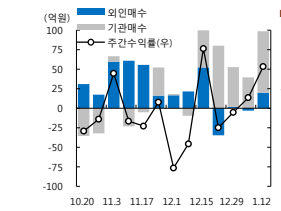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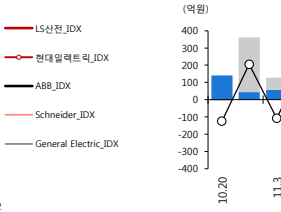


▶ 중전기 회사들 추가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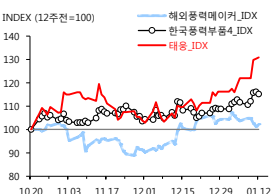
중전기 수급

▶ 중전기3사(현대일렉트릭, LS산전, 효성)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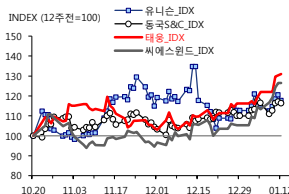


풍력

▶ 한국 풍력 부품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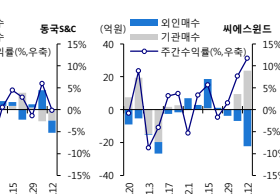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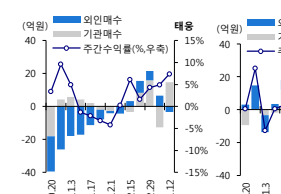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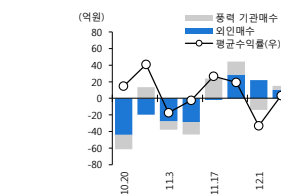


▶ 한국 풍력부품5사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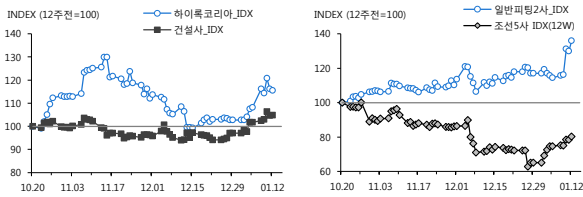
▶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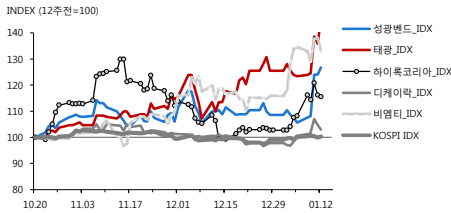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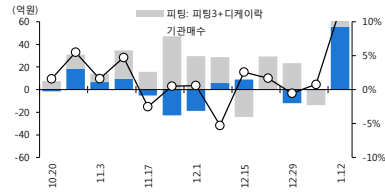
▶ 피팅 VS 전방1 건설



▶ 피팅 및 밸브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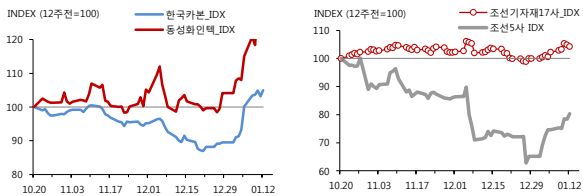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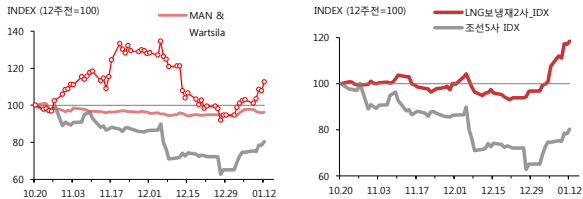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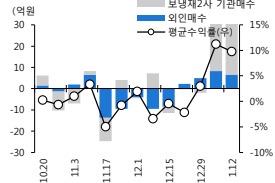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 엔진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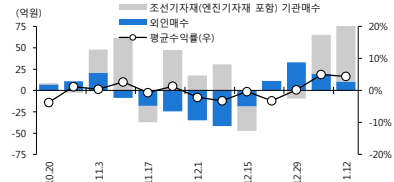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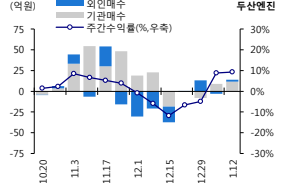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 보냉재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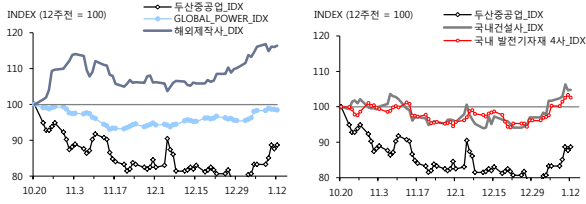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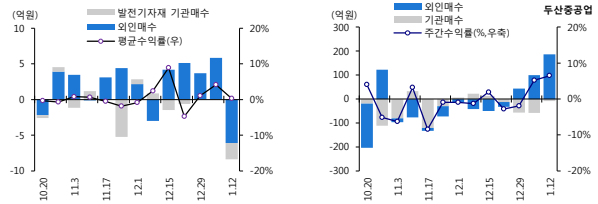
발전 및 발전기자재

- ▶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 ▶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및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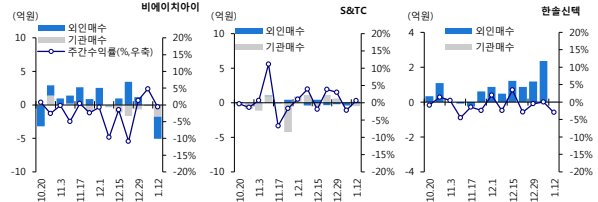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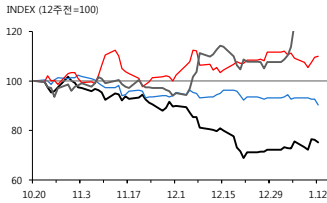
발전업 수급

- ▶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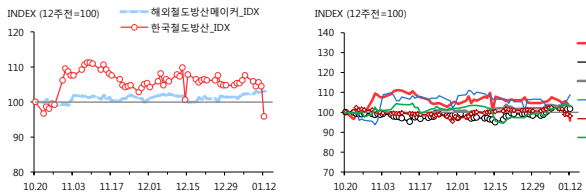
주식) 비에이치아이, S&T, 한솔신텍, 대경기계기술, 케이씨코트렐

발전기자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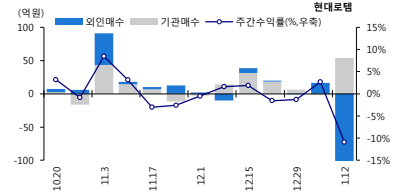
철도/승강기

- ▶ **철도 vs Global Peer**
- ▶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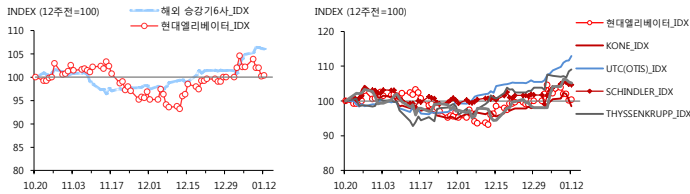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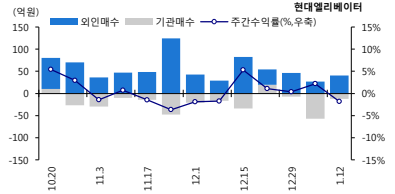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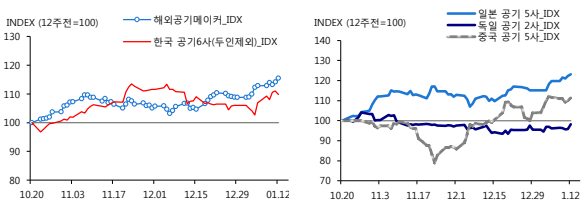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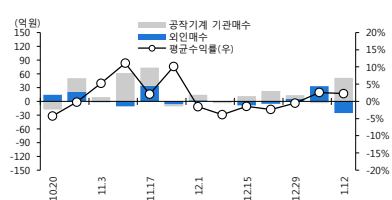
공작기계

- ▶ **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 ▶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 ▶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최광식, 원민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명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인쇄,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건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2017년7월1일부터 적용)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12-31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여건 비율(%)	93.1%	6.9%	-